

《물꼬》 독서지도안



물꼬, 물꼬가 뭐기에?
마음속 빗장을 풀고 상상력의 물꼬를 트는 시 그림책!

- 작가_ 안도현 시 | 은수 그림
- 출판사_ 풀과바람(바우솔)

본 독후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1. 도서 소개

‘물꼬’는 눈에 물이 넘어오거나 나가도록 만든 좁은 길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물꼬 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벼를 잘 키우려면 논물의 양을 잘 조절해야 하니까요. 가뭄이 들거나 장마가 오면 물꼬를 트거나 막아서 적당량의 물이 눈에 차도록 조절해야 하죠. 그래서 농사꾼들은 물꼬를 보러 하루에도 몇 번씩 논으로 가곤 했습니다.

《물꼬》는 논으로 물꼬 보러 간다고 하시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물꼬’가 무엇인지 알아내려 재미난 상상을 거듭하는 아이의 무궁무진한 상상 세계를 담은 시 그림책입니다. 안도현 시인은 순수하고 장난기 가득한 동심의 세계를 유머와 재치 넘치는 상상력으로 풀어냈습니다. 여기에 창의적인 그림들이 물꼬의 의미를 확장하며 장면마다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한 달 만에 반가운 비가 내리자, 할아버지는 삽을 들고 서둘러 논으로 나가십니다. 물꼬 보러 간다는 할아버지의 말에 아이는 어리둥절합니다. 물꼬라는 말을 처음 들었으니까요. 아이는 물꼬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물꼬, 물꼬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이 책은 낯선 단어를 마주한 아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뜻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물꼬를 되뇌며 자꾸 생각하니, 물꼬는 머릿속에서 개구리처럼 꼬르륵거리기도 하고 고양이처럼 꼬리를 치켜올리기도 하죠. 물꼬 트이듯 생각이 흐르고 흘러 상상은 날개를 달고 날아갑니다. 이미 만들어진 말, 익숙한 풍경, 친숙한 사물도 낯낫이 분해하고, 작게도 보고 크게도 보며 이리저리 궁리하면 새로이 보이지 않을까요? 책을 보며 함께 물꼬가 무엇인지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자신만의 상상 세계를 넓히는 사이, 감수성은 풍부해지고, 창의력은 쑥쑥 자라날 겁니다.

2. 지도 개요

- 대상 : 초등 1~2학년
- 관련 교과 영역 : 1~2학년군 통합교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공통
 - 1학년 1학기 국어 2. 재미있는 글씨
 - 7. 생각을 나타내요
 - 1학년 2학기 국어 2. 소리와 모습을 흉내내요
 - 2학년 1학기 국어 1. 시를 즐겨요
 - 9. 생각을 생생하게 나타내요
 -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 2학년 2학기 국어 1. 장면을 떠올리며
 - 3. 말의 재미를 찾아서

• 지도 요점 :

꼬르륵꼬르륵. 물꼬를 떠올리니 빈 배 속이 연방 꼬르륵거리듯이 머릿속이 간질거립니다. 공기 방울들이 물 위로 솟아오르듯이 머릿속에서 무언가 생각날 듯 말 듯하죠. 개구리, 고양이, 새, 벼, 가지, 당근, 무당벌레... 물꼬를 따라 다양한 동물, 사물이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책을 읽고 ‘물꼬’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3. 책 이해하기

(1) 할아버지는 눈에 무엇을 보러 간다고 하셨나요?



- ① 말꼬
- ② 똥꼬
- ③ 술꼬
- ④ 물꼬



(2) 물꼬, 물꼬 자꾸 생각하니까 물꼬는 머릿속에서 누구처럼 꼬락거렸나요?



- ① 병아리
- ② 개구리
- ③ 송아지
- ④ 코뿔소



(3) 눈에서 돌아오신 할아버지는 무엇을 입었는데도 양쪽 어깨가 다 젖었나요?



- ① 우의
- ② 점퍼
- ③ 바지
- ④ 치마



(4) 할아버지는 비가 얼마어치나 왔다면 좋아하셨나요?



- ① 오만 원어치
- ② 십만 원어치
- ③ 백만 원어치
- ④ 천만 원어치



4. 확장활동

(1) 이 책은 물꼬라는 단어 하나로 독자를 쉽고 재미있는 상상 놀이터로 안내해요. 오히려 주어지는 정보가 없기에 상상하는 데에 제한이 없으며, 독자는 단어로부터 내 마음대로의 이미지를, 이야기를 마음껏 그려낼 수 있죠.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단어는 무엇이 있나요?



(2) 알쏭달쏭한 물꼬의 뜻 찾기. 아이는 '똥꼬발랄'한 아이다운 생각으로 물꼬의 뜻에 아주 가까이 다가갑니다. 똥꼬나 물꼬처럼 듣기만 해도 팡팡 웃음이 터지는 말이 있나요?



(3) 궁금한 것이 있어 생각, 또 생각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친구들에게 알려 주세요!



[정답]

책 이해하기

(1) ④ 물꼬 | (2) ② 개구리 | (3) ① 우의 | (4) ③ 백만 원어치

확장활동

- (1) ‘엄마’라는 말만 생각하면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어요.
‘음식’이란 단어가 상상하기에 제일 좋아요. 등
- (2) ‘응가’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웃음이 나와요.
‘뽀뽀’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등
- (3) 궁금한 것이 생기면 바로 엄마에게 물어봐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책을 찾아봐요. 등